주차 : 1주차

제목 : \_\_\_\_

상화 : 서브이벤트 1번 진입 스크립트

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채아람이 말을 걸었다.

“저기, 선배. 머리 길러본 적 있어요?”

“머리? 한 얼마나?”

“저만큼이요.”

“당연히 없지.”

너만큼 기르려면 거의 몇 년은 길러야 할 텐데.

“근데 그건 왜 물어봐?”

“머리가 기니까 자꾸 방해되더라고요.”

채아람이 손가락으로 앞머리를 긁적였다.

“가만히 있을 땐 괜찮은데 운동할 때 자꾸 거슬려서요.”

“요렇게 눈을 콕콕 찌르기도 하고.”

“아프겠네.”

“그렇다고 또 자르긴 아깝잖아요? 지금 머리도 마음에 들고.”

“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어요.”

“음...”

나는 채아람의 고민에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다.

[ 머리핀 ] [ 고무줄 ]